

“과도한 배당 압박에 빛까지… 지역은행 경쟁력 흔들”

광주은행 노조, JB지주 겨냥 1000억 증권 발행 우려 은행 층 “안정적 BIS 관리 필요… 당초 사업범위 내”

광주은행 노동조합이 최근 광주은행이 추진 중인 1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과도한 배당 압박이라 규정하고,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자 했다.

반면, 광주은행 층은 당초 올해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라며 노조 층이 제기한 주장을 일축했다.

광주은행 노조는 4일 광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은행이 1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하는 것은 지주사의 지나친 배당 요구에 따라 취약해진 규제자본비율(BIS) 관리

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통상 금융권의 경우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당기순익의 일부를 유보하거나 증자를 통해 자자본을 확충한다”며 “그러나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은 지속적인 과도한 배당 요구로 올해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라며 노조 층이 제기한 주장을 일축했다.

광주은행 노조는 4일 광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은행이 1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하는 것은 지주사의 지나친 배당 요구에 따라 취약해진 규제자본비율(BIS) 관리

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광주은행은 고객 리밸런싱이라는 명목하에 지역민,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자 부담 가중 계획을 짜고 있다”며 “이는 이익이 적게 나는 고객은 빼내고 리스크가 큰 이익이 많이 나는 고객만 행기겠다는 철학의 자본주의 심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 은행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금융의 포용성, 상생의 가치, 지역민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결정이다”고 덧붙였다.

박민 광주은행 노조위원장은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과도한 배당을 위해 자회사에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부과하는 부당행위”라며 “이는 지배주인 지주와 자회사 16만주를 소유한 김기홍 회장의 사익을 위해 자회사에 손해를 입히려는 배임 행위로, 금융감독원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은행 층은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올해 은행 사업계획에 반영된 금액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2021년 700억 원 만기상환 이후 순익으로 자자본비율을 유지해 왔으나 공공기관 금고 선정, 정부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본 비율 관리가 필요해 올해 사업계획에 따라 1000억 원 범위 내로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이후 9년 만에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현재 보통주자본비율은 양호하지만 기본 및 총자본비율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어 기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의 충분한 버퍼 확충을 위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박민 광주은행 노조위원장이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은행,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 금융지원

25억 원 규모 보증대출 공급… 기업당 최대 5억 원

광주은행은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지역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지원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응지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광주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이 함께 체결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응지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4일

원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제도 도입 초기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퇴직연금 정착을 돋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은행은 이번 사업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료 지원금을 포함한 특별 출연금 1억 원을 출연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약 25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

급한다.

지역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하도록 실질적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출상품은 기업당 최대 5억 원 한도의 운전자금으로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직전년도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을 신규 도입하고 1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이다.

단, 퇴직연금 도입이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은 부담금 납입 이력이 1회 이상 필요하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경감하고, 제도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안정적 노후 준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블루카본 ‘잘피’ 군락지 조성 한전, 군산 바다에 8만주 이식

한국전력이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해양 탄소흡수원(블루카본) 인 ‘잘피’의 군락지 조성에 힘쓰고 있다.

4일 한전에 따르면 블루카본은 바다와 해초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로 산림 등 육상의 탄소흡수원인 ‘그린카본’보다 50배 이상 빠르게 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

또한 탄소 저장 능력도 2배 이상 높아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함께 지난해 전남 완도 연안에 ‘잘피 숲’ 3㏊를 조성한 데 이어 올해는 전북 군산시 장자도 연안 2㏊ 면적의 바닷속에 잘피 8만주를 성공적으로 이식했다.

한전이 블루카본으로 이식한 ‘잘피’는 바다 속에서 흙을 피우는 해초류로 맹그로브 숲, 염습지와 함께 UN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공식 인증한 3대 블루카본 중 하나다.

완도·군산 지역에 5㏊ 규모의 잘피 군락지는 승용차 1000대가 1년간 배출하는 약 2500t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전은 국내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한 ESG 경영과 환경보전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남광주농협, 김장김치 나눔 행사 250가구 분량…취약계층에 전달

남광주농협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고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남광주농협 임직원을 비롯해 부녀회, 농기주부모임, 고향주부모임 등 여성단체 회원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성껏 절인 배추를 버무리며 250가구 분량의 김치를 직접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관내 독거노인과 경로당,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했다.

남광주농협은 매년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김장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해 정성을 담는 봉사활동이라는 점에서 이웃 사랑과 상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이영주 남광주농협 조합장은 “매년 추운 날씨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성을 다해 참여해 주시는 여성단체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사랑과 온정이 가득 담긴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을 따뜻하게 하는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가전산업 스텝업서포트’ 연계 성과 공유 61개사 대상 성장 로드맵 수립 등 맞춤 지원

광주상공회의소는 4일 청사 회의실에서 올해 가전 관련 중소기업 지원 성과를 공유하는 ‘2025년 가전산업 스텝업서포트-연계사업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추진 중인 ‘지역혁신프로젝트-가전 내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진행된 가전지원 컨설팅 성과와 우수사례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가전산업 스텝업서포트’ 사업은 지난 4월부터 추진돼 광주·전남 지역 가전 및 융합 업종 중소기업 61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전, AI 디스플레이, 로봇, 시 험인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0여명이 전담 컨설턴트로 참여해 기업성장로드맵 수립, 신제품 개발, 기술개발 고도화 등 실질적인 성장을 견인했다.

사업은 당초 목표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 맞춤형 컨설팅 61건, 정부 및 타 기관 연계사업 53건 등으로 구체적인 결과를 냈으며 이를 통해 기업별 성장단계

에 맞는 지원 체계가 한층 정교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신제품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구성된 3개 컨소시엄(6개사)은 무균정형 펫 하우스, AIoT 어메니티 디스펜서, UV기반 광촉매 살균 펫공기청정기 등 혁신 제품을 개발했다.

각 컨소시엄에는 최대 8000만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으며, 컨설팅·시제품 제작·디자인 개발을 우수로는 통합형 지원으로 높은 만족도와 우수한 성과를 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가전산업 스텝업서포트 사업은 단순한 컨설팅을 넘어 지역 가전기업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올해 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실질적인 성장 지원과 우수한 성과를 확인한 만큼 내년에도 더욱 강화된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 지역 기업 활성화와 매출 증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

인터넷진흥원, 스미싱 피해 예방·대응 강화

카카오뱅크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에서 카카오뱅크와 스미싱 피해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기술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진흥원이 다년간 스미싱 탐지·대응 과정에서 축적해온 국가 사이버 위협 데이터와 이에 대한 분석기술이 카카오뱅크의 ‘인공지능(AI) 스미싱 확인 서비스’에 적용된다.

해당 기술은 카카오뱅크 이용자가 ‘AI 스미싱 확인 서비스’에 스미싱 의심 메시지를 조회하면, 진흥원의 ‘스미싱 확인 서비스’ 분석 기능과 카카오뱅크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 기반 분석기술이 함께 작동해 문자 내용과 링크 (URL)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원리로

해당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더욱 정확한 스미싱 판별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기술 연계로 이용자는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정확도가 향상된 스미싱 분석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신고 가능한 의심 메시지 유형에도 제한이 없어, 문자, 메신저 등 다양한 경로로부터 유동되는 신규 스미싱 유형까지 대응 범위가 확장된다.

나주=조합원 기자 pose007@gwangnam.co.kr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에서 카카오뱅크와 스미싱 피해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